

스포츠 스타들 “피는 못 속여”

부모 못지않은 실력으로 주목받는 2세들



차두리



기성용



조윤지



안병훈



1980~90년대 배구 코트를 호령한 거포 한장석의 아들로 KIA에 1라운드 지명된 덕수고 한승혁.

최근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KIA에 1라운드 지명된 덕수고 한승혁(17)의 집안 내력이 스포츠 팬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프로야구의 거슬러올라온 스콧 보라스와 계약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한승혁이 배구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한승혁의 아버지는 1980~90년대 배구 코트를 호령한 공격수 한장석 전 대한항공 감독이다. 한 전 감독은 인하대를 졸업하고 실업배구 대한항공에서 위력적인 스파이크를 날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한 전 감독의 당당한 체구(186cm, 88kg)는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한승혁은 올해 드래프트에 나온 고등학교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시속 150km 내외의 공을 던질 정도로 걸출한 기량을 갖고 있다.

이달 초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한 골프 선수 조윤지(19·한솔)가 스포츠 가족으로 주목받았다.

볼빅 라일랜드코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에서 1위를 차지한 조윤지는 부모가 모두 스포츠 스타 출신이다. 아버지는 프로야구 삼성 감독대행을 지낸 조창수 씨고 어머니는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 감독을 맡은 조혜정 씨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마이크 벤더 골프 아카데미에서 레슨 프로

라서 사실상 온 가족이 스포츠인인 셈이다. 이 밖에도 프로 스포츠계에는 우수한 유전 인자를 물려받아 대를 이어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많다.

특히 조윤지·조현희 남매처럼 스포츠 스타를 부모로 둔 골프 선수가 상당히 많다. 작년 8월 제109회 US아마추어 골프대회 정상을 오르면서 이 대회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로 활동하다가 올 초 귀국해서 세미 프로로 뛰고 있다. 또 해태 강타자 출신인 김준환 원광대 감독의 딸인 김상희도 프로 골퍼로 활약하고 있다.

김성한 전 KIA 감독과 김용철 전 경찰청 감독의 자녀도 골프채를 잡고 스타를 꿈꾸고 있다. 여기에 프로배구 김호철 현대캐피탈 감독의 아들 준도 2세 골퍼 명단에 이름

한승혁과 같은 날 LG에 2라운드로 지명된 투수 이영재(천안북일고)는 한화 출신 대스타 송진우의 외조카다. 송진우의 두 아들도 모두 중고등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뛰고 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는 추신수와 박정태 둘째 2군 감독도 삼촌 조카 사이다. 조동화(SK)-동찬(삼성), 을해 두산에 지명

KIA에 지명된 한승혁 배구선수 한장석 아들

조창수·조혜정의 딸 조윤지 KLPGA서 우승

축구 차두리·기성용·오범석 등도 스포츠 가족

안병훈(19)은 ‘탁구 커플’로 유명한 안재형-자오즈민의 아들이다.

김용희 SBS스포츠 해설위원의 아들인 재호는 2004년 KPGA를 통해 프로로 입문해 김호철 감독의 부인 임경숙 씨는 배구 국가대표 출신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또 야구 스타를 아버지로 둔 선수로는 유승안 전 한화 감독의 아들인 한화 투수 유원상이 있다. SK의 박윤은 박종훈 LG 감독의

된 대전고 투수 양현과 양훈(한화)도 형제 사이이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은 김동빈(한화)은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또 야구 스타를 아버지로 둔 선수로는 유승안 전 한화 감독의 아들인 한화 투수 유원상이 있다. SK의 박윤은 박종훈 LG 감독의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골프 국가대표를 거쳤으며 김 감독의 딸 미나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 아마마리에서 세터로 뛰고 있다.

김용희 네손 코치의 아들이며, 한화의 지명을 받고 연세대로 진학한 이성근은 이 순회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반면 가족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활약한 종목에서 자녀가 그대로 뛰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하는 예다.

김재박 전 LG 감독의 아들 기현은 미국

을